

(라이팅포함) 아이엘츠 재채점 완벽 분석.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

by 맘잉! posted SEP 25, 2020

많은 분들이 재채점을 받을지 말지 문의하시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퍼런스 확인하세요.

아이엘츠 재채점 팩트 정리

- 재채점은 반드시 시험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
- 한 과목만 신청할수도 있고 모든 파트를 신청할 수도 있다
- 당신의 시험지는 IDP나 영국문화원으로 보내진다. (호주나 영국으로 가기도 한다)
- 당신의 시험지는 상급 시험관이 다시 채점하게 된다
- 재채점은 6-8주 소요된다. (CBT의 경우 3 - 21일 정도만 소요된다는 얘기도 있다)
- 약 \$80 재채점 신청비용이 들지만 점수가 변할 경우 환불된다

어떤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나요?

- 아이엘츠에서 리스닝과 리딩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재채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.
- 라이팅과 스피킹은 Band Descriptor의 채점 기준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채점하려고 하지만 시험관의 주관에 따라 점수차이가 발생한다.
- 그러므로 스피킹과 라이팅 재채점 신청은 고려해볼만 하다.

점수가 얼마나 올라야 하나요?

- 아이엘츠 재채점을 통해 0.5점 정도는 오르는 경우도 꽤 있다.
- 그러나 1.0 이상 오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.
- 즉 6.5 받았는데 7.0이 필요하다면 신청해볼만 하지만, 6.0 받았는데 7.0이 필요하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.
- 왜냐하면, 1.0 점수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 채점한 시험관이 채점 기준 중 3-4개 항목에서 1.0 낮게 점수를 매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.
- 플렉스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1.0 이상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청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.

다른 영역에서 몇 점을 받았나요?

- 한가지 영역에서만 대단히 낮은 점수를 받았을때, 즉 예를 들어 8.5 / 8.0 / 6.5 / 8.0 을 받았다면 라이팅(6.5) 재채점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.
- 왜냐하면, 이미 당신의 점수는 두 번 채점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.
- 아이엘츠 시험관들은 이렇게 한 영역에서만 크게 점수차이가 나면 재검토하도록 훈련받습니다. 시험관의 실수로 점수가 너무 낮게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
- 그래서 이런 경우 새로운 시험관이 다시 한번 채점하게 됩니다.
- 솔직히 정확히 몇 점 차이가 나야 이런 자동 재채점에 들어가는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1.5 정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.
- 그래서 당신이 한 영역에서만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오히려 재채점을 통한 점수 상승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.
- 역으로 생각하면, 점수가 비슷하게 다 높고 한과목에서만 0.5가 부족할때 (예를 들어 7.5/7.0/6.5/7.0) 점수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

라이팅 vs. 스피킹 차이

- 지난 시험보다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.
- 특히 라이팅은 시험 당일 주어진 주제와 유형에 따라 1.0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스피킹은 라이팅에 비해 훨씬 일정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과목입니다.

- 어느 정도 유창하게 영어로 소통이 되면 아이엘츠 스피킹의 어떤 주제라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그래서 지난 번 스피킹 시험보다 점수가 떨어졌을때, 특히 연습을 계속 해오고 선생님이 더 높은 점수를 줬다면 재채점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.
- 8.0을 받았다가 6.5받은 경우를 봤는데 (두 시험간 3주 차이)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재채점을 신청했고 7.5로 점수가 변했습니다.

라이팅 재채점 - 테스크 1과 Task response를 고려했나요?

- 학생들이 이상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때 보통 테스크 2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.
- 그러나 경험상 때로는 테스크 1이 이렇게 낮은 점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학생들이 테스크 1에서 데이터(A)나 항목(G)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실수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- 테스크 2에서 7.0이 나왔어도 테스크 1이 6.0이라면 합쳐서 6.5를 받기 쉽습니다.
- 같은 방식으로 테스크 2도 생각해봐야합니다.
- 많은 에세이들이 문법과 어휘는 훌륭하지만 Task response 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.
- 주로 오프 토픽이거나 아이디어 전개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

시험 당일의 진실은 당신만이..

-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떠나서, 누구도 당신이 그 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거라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.
- 그날 자신의 시험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생각해본 뒤에 재채점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.
- 여러분이 정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, 재채점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재채점을 통해 점수가 변동됩니다.
- 그저, 재채점 결과를 너무 기대하느라 다음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됩니다.

재채점 성공 확률을 고려해보세요

- 재채점은 결국 비싸고 시간 잡아먹는 도박입니다.
- 제 경험상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0.5 정도 오를 확률은 30-50%지만 통계자료가 없이 그냥 제 경험입니다.
- 여유가 있으면, 해보세요. 아니라면 그냥 다음 시험을 더 열심히 준비하세요.
- 재채점을 고민할 단계에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목표점수에 상당히 가까워졌을 것입니다.